

조선
유리
몽권저스

서울
신문
관문
발

In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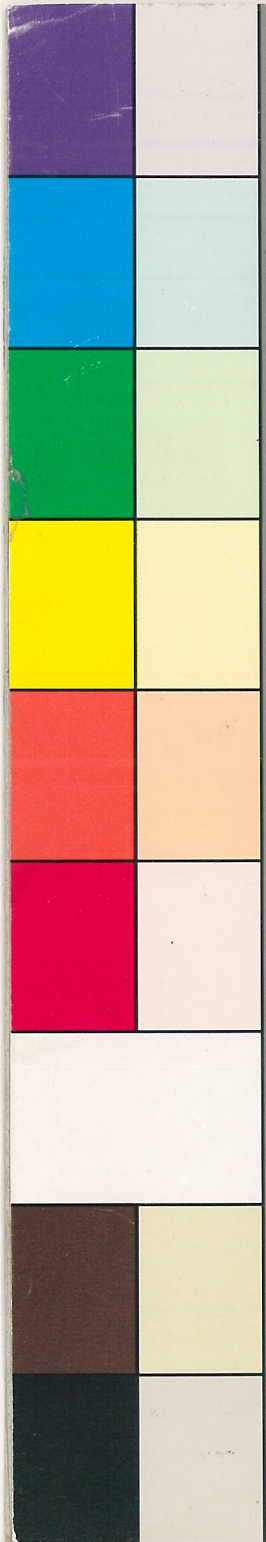
Centimetres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옥루몽권지스 목록

玉樓夢卷之四目錄

중향각에연왕이잔치를유장하고
미화원에서제랑이의를밧다
衆香閣燕王主宴
梅花院諸娘結義

동마량장이쌍으로쇼청련옥을장가들고
진연이왕이코치영춘면에현수하다
董馬兩將雙娶清玉
秦燕二王獻壽迎春

별쥬를마셔량왕이그만히풍류진을싸호고
금련축을 읊혀제랑이다도아칠보시를드리다
飲罰杯兩王暗鬪風流陣
咏蓮燭諸娘爭呈七步詩

털귀비문을달녀치구를치고
홍란성이칼을출추어공작을희롱하다
鐵貴妃馳馬擊彩毬
紅鸞城劍舞戲孔雀

데오십회... (四二)

상춘원의 단풍과 국화에 지기를 맛나고
조선년의 겨울을 우뢰 잔악함이 무리를 써치다

賞春楓菊遇知己
紫宸冬雷破奸黨

데오십일회

..... [五二二]

충역을 분변하야던 지름음을 반포하고
던원에도라가라고연왕이 표를 올니다

辨忠逆天子頒綸
歸田園燕王上表

데오십이회

..... [七〇]

상동문에던지연왕을전송하고
취성동에제랑이별원을중수하다

上東門天子餞燕王
聚星洞諸娘修別院

데오십삼회

..... [八五]

염남헌에부인이구슬을희롱하고
완월당에제랑이비를써우다

饒南軒夫人弄璋
玩月亭諸娘汎舟

데오십사회

..... [九二]

화진이벼슬을스양하고쳐스를찾고
창곡이글을화답하야던지씨드리다

花珍辭職尋處士
昌曲賡詩獻天子

데오십오회

..... [一〇二]

취성동에진왕이별원에놀고
즈개봉에홍랑이신선을짓다

聚星洞秦王遊別院
紫蓋峰紅娘做神仙

데오십륙회

..... [一一一]

오선암에제랑이신선의자취를희롱하고
즈개봉에랑왕이일출함을보다

五仙菴諸娘弄仙跡
紫蓋峰兩王觀日出

데오십칠회

..... [一二九]

가섭암에진왕이벉을리별하고
대승스에선랑이어버이를맛나다

迦葉庵秦王別友
大乘寺仙娘訪親

데오십팔회

..... [一三八]

룡문에올나양성이구슬을련하고
초왕을구원하야상세전장에나가다

登龍門楊生連璧
救楚王尙書出戰

데오십구회

..... [一五七]

양상세구겨하다가동홍을버히고

楊尙書擊毬斬董紅

손선성이동상에아름다운사회를맛다

孫先生東床迎佳婿

데류십사회

..... (一九二)

설중미봄을전송농야옥랑을모드고

雪中梅餞春會玉娘

과상세취함을드청루를부슈다

霍尙書乘醉打靑樓

데류십일회

..... (二一八)

방탕함을경계하야인성이괴성을썩짓고

戒放蕩仁星責箕星

락성연을베푸러빙랑이미랑을청하다

宴落成冰娘請梅娘

데류십이회

..... (二二二)

양성이런하야삼장과거를맞치고

楊生連中三塲試

던지천히부흥노를치다

天子親征北匈奴

데류십삼회

..... (二五〇)

공을의론하논자리에양원슈로진왕을봉하고

論功席楊元帥封秦王

조회에드러오는날에축융왕이쌀을차자보다

入朝日祝融王見嬌兒

데류십사회

..... (二六二)

란성부에나락이되읍기를청하고
빅옥루에보살이꿈을말하다

鸞城府那吒請謁
白玉樓菩薩說夢

중향각그림

衆香閣圖

일지련화상

一枝蓮像



다향주를치잔이왕연에가향중

우루몽권지사목록중

一枝蓮



런 지 일

옥루몽권지서

玉樓夢卷之四

대소심륙회

중향각에연왕이잔치를유장하고
미화원에제랑이의를밧다

衆香閣燕王主宴
梅花院諸娘結義

각설초시선숙인이연왕을더하야알더사람은나를알거든나는더사람을모른죽엇더
하리잇고연왕왕불가하니라우왕인군이신하를문별로써그지덕을못지아니하죽엇
이라만리라국에부모를찌나상공을조차옴은풍치를함양하야지괴로밧음이어늘이
제부중에쳐흔지수년에상공이중시슈습하심을저하하니이반드시만이지인을
혐의하심이라이엇지련랑은상공을알고상공은련랑을모름이아니며인군은신하를
문별로써그지덕을못지아니함과다르리잇고첩은보건대금일연석에만채진취하야
모다홍락하나련랑일인이홀노우량초창하야감개불우하는탄식이잇거늘상공이엇
지모르시느니잇가연왕이미쇼왕련랑이란성을남조로알고씩라음이니이엇지나를

스모함이리오속인이란왈제간에사를알기이긋치어렵도다상공의복으심으로련랑
 을이디지모르시느니잇가련랑의절인호총명으로엇지남녀를분별치못하고빅년지
 락을경영하리오연고로금일노름에만가삼첩으로써본심을하소함이오니그초장은
 처디를설위함이오중장은홍금을도출함이오중장은불우지탄을말함이라첩이심스
 를위로코저하야아양도로써저괴상봉함을치하하고관성이그평성을긋치하랴호고
 로유선스로써우유산회함이니상공은다시싱각하사화괴의감상함이업게하쇼셔연
 왕이미쇼부담하더라차설란성이련랑을차저다시중항가에니르니츠시일락서산하
 고월출동령하야은영호들빛이화영을옴겨란두에긋하중련랑이봄동산에잔술의
 곤함을이긋지못하야일하에셋을보다가인하야란간의지하야조를거늘란성이
 만히숨혀보니도화량협에홍훈이긋하야춘광이무르녹고팔조춘산에풍정을로출
 하야수심이어리온중덤덤호루흔이무르지아니하야지분이아롱지고라삼소미저저
 거늘란성이미쇼하고크게소리하야알련랑은아름다운들을디하야조를지말지어다
 련랑이놀나급히라삼을거두며샤례왈첩이년천호등으로제랑의강권하시는후의를
 저브리지못하야이긋치취도홀디경에니르니참괴하도소이다란성이쇼왈인성빅년
 이쿨뜻히이슬긋흐니취치아니하고무엇하리오하고인하야긋치란간의지하야들
 과셋을구경홀시란성이호연웃고련랑을보아왈랑은더중련의등근들이도라오는반
 들과엇더하며이슬아적반기호셋과저녀비에란기호셋이어느셋을사랑하느뇨련랑

이미쇼왈첩은반륜월과반기화를사랑하느이다란성이쇼왈이느사람마다취하느바
 나셋이엇지일성반기하며들이엇지일성반월로잇스리오삼춘힝락이실시호죽호안
 빅발이사름을속이느니련랑이이제적요후원에중항각을지회고능히무료호수심이
 업슬쇼나련랑이벗그려디답지아니하거늘란성이이에련랑의손을잡고란왈랑이만
 리절역에부모친척을브리고중국에너름은내엇지그셋을모르리오마는오늘밤이맛
 춤중용하니춤곡을속이지말고호번쾌히말하야빅년가괴를그릇치게말라련랑이홍
 훈이만면하며머리를숙이고침음량구에왈랑이임의첩의셋을아노라하시며다시첩
 드려말하라하시니엇지이긋치핍박하시느니잇가란성이쇼왈그만하면랑의의향을
 짐작홀지라첩이이제장초연왕씨천거코저하노니랑의셋이엇더하뇨련랑이더욱슈
 습하야디답지안거늘란성왈랑이중시첩을서어이아는도다호인은인륜대식라녀조
 의평성고락이여괴달넷스니랑이이제부모를떠나고홀곳이업는지라이엇지호마디
 말을듯지아니하고임의로주장하리오련랑이쳐연왈첩의셋이죽랑의셋이라첩이비
 록만이지방에성장하얏스나규중쳐조로랑을조차여괴니름은장초평성을의하에의
 락하야랑과더브리성스고락을긋치하랴호미라무슴별다른말슴이잇스리오마는다
 만세가지약속호배잇스니랑은알아하쇼셔연왕상공이만일첩의미음을모르고다만
 안식을취호죽그불가함이하나히오쳐디를불상이녀이사강잉하야슈습하신죽그불
 가함이두가지오방인의력권함을인연하야민면종지하신죽그불가함이세가지라만

일세 가지에 혼가지 불가함이 라도 잇슬진대 첩이 장차 영천수에 귀를 씻고 로련의 동허
 를 뵈을지 언당계상을 구차 투싱치 아니하리이다 라 성이 차탄하고 바로 윤부인 침실에
 니르니 연왕과 선숙인이 다 저좌하엿더라 연왕이 혼연정식 왕근 일란성의 괴석이 분주
 불가하야 좌불안석하니 무슴도 혼일이 잇는 노란성왕 첩에게도 혼일인 즉 상공씩도 혼
 알이라 엿지은 휘하리 잇고 보비구슬이 진도에 못치고 일 혼난 뜻이 즉 중에 떠러 짐은 고
 인의 차석하느니라 첩이 일지련을 잠간 봄에 진짓진 주명해라 만중에 허로 혼을 즉 연하
 야 거두어 음은 상공의 알으시느니라 만리타국에 종적이 얼을하야 도로 허첩의 근심이
 라 만일 상공이 슈습하샤 좌우에 두신 즉 민첩흔지질이 쇼성건줄에 군즈를 밧들미 첩등
 으 로 당치 못할곳이 잇슬가하느이다 연왕이 츠연을 듯고 윤부인을 보며 왈 너즈의 투괴
 혼은 진실로 미적아니나 가부를 위하야 녀석을 천거함이 또 혼은 당치 못하니 이엇지란
 성을 밧든 본의 리오란 성이 개연왕 첩이 비록 불민하오나 방당 혼일로써 상공의 청덕을
 손상치 아닐지니 상공의 말씀이 더고 호실진대 또 혼련랑의 소원이 아니로소이다 연왕
 이 다시 미쇼왕련랑의 소원이 무엇이 노란성왕련랑의 말씀이 상공이 무음을 모르시고
 다만 조식을 취하신즉 소원이 아니오 쳐다를 즉 연하야 강잉하야 취하신즉 소원이 아니
 오 방인의 력권 혼을 인연하야 민면종지하신즉 소원이 아니라 만일이 세가지에 혼가지
 라도 잇슨 즉 출하리로련의 동허를 뵈고 영천수에 귀를 씻지언당이 세상에 구차 투싱
 치아니라 하더이다 연왕이 쇼왕련랑의 말이 비록 쾌활하나 세간에 무음이 난재 몇몇

치리오내본디 녀석 풍정에 담연치 못흔재라 만리 풍진에 경국가인을 다려다가 엿지라
 문에 보내리오 임의 존당씩고하고 무음에 당하얏스니 란성은 미패라 월로적승의 괴
 를 속성할지 어다 란성이 초연부답하고 윤부인을 향하야 왕세간에 첩조치불긴 혼재업
 논가하느이다 쇼첩을 구하야 군즈에 개헌총하고 저하가 도로 허공업논척망을 밧조
 오니 바야호로 그 번잡 혼을 추회하느이다 연왕이 쇼왕련성은 현총함이 엿지오느니
 리오 좌상에 안진부인도 또 혼랑의 현총하바니 너모요공치말고 유시유종하게하라 란
 성이 쇼왕장성흔 규슈와로 창흔신랑이 가기를 글지고 디하시니 엿지 완완이 성례하리
 오금월은 모춘삼월이 오중술은 복덕일이니 츠일로 초례하쇼셔 연왕이 혼연응락왕이
 논나의 마지막 혼인이라 부인과 란랑은 무엇으로 부조하려느노 란부인의 상을 밧하
 희귀흔비단으로 궁샤극치하교 란랑은 음식을 준비하니라 츠시연왕이 련표과와 성혼
 하느소문이라 장하흔바와 황래회각각치 단잡물을 후이 부조하시고 조영벽관이 연
 부에 니르러 다도와 처하하더라 길일을 당함에 중향각에 연석을 비설하교 연왕이 당간
 흥포로 초례를 행할시 란랑이라 삼화관으로 단장을 정하하교 초석에 나가니 츠시 황
 성중주 문갑대의 시비차 환과 여항부네 상춘원을 덩허 전후 좌우의 구경하느재물살듯
 하더라 궁인이 태후의 명으로 십여기 궁녀와 초례를 구경코져니 르니 일좌후원에 주
 취홍장이 셋밧을 일컷스니 더마다 연왕의 쇼년풍치와 련랑의 아릿다운 조질을 칭찬함
 앙하느소리 우리도 더라 란성이 잔을 밧드러 연왕씩 권하야 왈 오느일길신랑하야 신인

을마지시니 상공은 이 잔을 밧으샤 백년히로하시고 부귀다남하샤 신정은 여구고 구정은 여신하쇼셔 연왕이 웃고 마셔 왈 란성은 늑의 합환을 인하야 지고 합환사지하노도 다일재대쇼하더라 란성이 다시 잔을 들어 려랑을 권하야 왈 란은 이 잔을 밧아 군즈를 피시고 백년히로하되 청춘홍안이 평성을 누리말아 날고치소디 밧음이 업게하랴 일재도 대쇼하더라 연왕이 초례를 맞고 량랑을 명하야 려랑을 다리고 량친씨 뵈오니 래야 래야 대쇼하며 갖가이 안치고 그 총명혜힐흔조질과 어린티도를 못리사랑하며 재로이 두곳기더라 시야에 연왕이 중향각에 화축을 밧히고 량랑을 머머러 신인을 위로하랴 고 량친씨 혼정하랴 가니 려랑이 량랑을 디하야 홀연 속하에 합루하며 초연불락하거늘 란성이 물왈 란이 무엇을 생각하고 이고치 초창하노뇨 려랑이 초연티 왈 만향인물로 상국의 손이 되야 여성을 장춘군조문중예의 탁홀지니 비록 여홀이 업스오나 부모천척을 아득히떠나음신이 돈절하고 혼인은 인륜대서라 부모뵈고하지 못하교스스로 주창하니조연신세를 축감하야 설위홀이로소이다 란성이 또 추연이 려랑의 손을 잡고 탄왈 내역시부성모혹하신 정리를 모르는 재라 금야 초석에 우리 삼인이 쳐디와 신세 십분방불하야 일인을 섬겨 백년을 괴약하니 영고 우락이 엇지 다를 배잇스리오 우리 맛당히 늑은 술과 늑은 들을 가져서로 평성을 밧게하야 넷적류관장삼인의 도원결의 홀을 효축홀이 엇다하노모다 일시 응락하교 즉시 일호 주를 가지고 후원에 올라 들을 향하야 안져 각각 슈증에 잔을 들어 그 만히 밧원왈

劉、關、張、桃園

賤妾江南紅 年 十八歲 杭州人 賤妾碧城仙 年 十七歲 江州人
 賤妾一枝蓮 年 十五歲 南方人 一時合掌焚香 月光菩薩
 천첩일지련은년이십오세니 남방인이라 일시합장분향하야 월광보살씨비나이다
 妾等三人 各處各姓 各各 妾等三人 各處各姓 各各 死生
 첩등삼인이 비록 각처 각성으로 각각 모헛스나 혼모음 혼뜻으로 혼사를 섬겨서 생
 苦樂 盟誓 異心 一片明月
 교락을 혼가지로 하오니 임의 밧서 혼후에 만일이 심을 두는 재잇거든 일편명월이거
 울고치 조림하쇼셔
 삼인이 밧기를 못고 술을 가져 화림간에 부르며 일시합장 처비 혼후서로 손을 잡고 도라
 을서 란성이 량랑을 보며 탄왈 우리 만일인간 진연을 못고 옥경청도에 다시 이고치 모일
 진대금야 밧세 홀을 서로 잇지아나리라 하교 량랑이 슈작하며 슈혜를 선을 고비회하더
 니 홀연 수플뒤에 웃는 소리나거늘 란성이 밧을 멈추고 그 만히 드르니 쇼청련옥이 화림
 간에 안져서로 손을 잡고 려옥이 쇼청을 보며 들을 머쳐왈 쇼청아 혼뜻가지에 밧초이
 는 들빛을 보라 춘광을 허송하야 광쳐더 옥아 름답다 내 전일은 들을 디홀죽정신이 쾌활
 하더니 근일은 명월을 본즉 무단이 초창하야 정인을 리별홀곳흐니 엇지 홀곡절이 쇼
 청이 침음왈 나느 들밧은 밤이면 공연이 잠이 업서 료호심스를 형용기어려오니 그 무
 슴병이 노옥이 미쇼왈 사름이 죽어 후성이 잇다하니 너는 후성에 무엇이 소원이 쇼유문
 갑데의 왕후부인이 소원이냐 청루명기되야 풍류량을 제눈으로 골나 평성의 은총을 일

치말고총첩됨이 소원이냐네 뜻되로 말하라 소청이 소왕네 몬져 말하라 나는 련숙인의
 팔자를 부러호노라 옥이 소왕네 오늘 련랑조의 초례함을 구경하고 심중에 흠선함이
 나는 우리랑조만 못할가하느니 세간에 룩례를 초아괴구잇게 성은 흠은 셋섯한일이
 라 우리랑조는 상공을 맛나 실제 풍정으로 희롱하고 슈단으로 룩락하야 압강당연석에
 노래로 언약하고 월하에 남복으로 글을 지어 화답하니 은근한 정근과 무궁한 운치
 듯는자로 내이사라지고 잔장이 녹을 지니이엇지가 인제조의 소원이 아니리오나
 는 죽어 후청에 우리랑조호흔재되고저호노라 말을 못하고서로 크게 웃거늘 램성이
 련숙인을 보며 월청련랑비의 말은 진짓창기의 말이로다 슈연이나 망월하는 단식이
 심분춘광을 지축하니엇지면요호리오 선숙인이 웃고인하야 마달이조괴를 구
 할제쇼청을 뜻든 말과 동초의 썩을 쏘아 련옥을 괴롱하든 말을 전하니 램성이 미소하
 라 초시연왕이 램 당에 혼성을 못하고다시 중향각에이니 주박은 병을 텅텅히
 베풀고 부용장을 스면에 드 리워향연이 몽롱하고 일지화축이 등화를 미져
 송이송이 램만하되 비옥상우에 원앙금 을 펼쳐고 삼랑은 잔곳이 업거늘
 시비드려 무른대티 월랑이 련숙인과 후원에 완월하 라 갖느이다 연왕이
 웃고 돌쳐 원중에이니 요요호월광이 화영을 움겨싸에 그득흔중 옷의
 향내축비하고 징연환패소리 화림잔에 들니 거늘 연왕이 말을 멈추고 은은이
 브 라보니 삼랑이 옥슈를 서로 잡고 미미호말소리 싹치지아니호며 슈혜라
 말이 월광을 밟 아오다가 연왕이 화림잔에 섰슴을 보고 놀나잡은 손을
 뚫코서로 램랑이 웃거늘 연왕이

北海 耶律氏 拓拔闕氏

쇼왕금야월식은 전허제랑을 위하야 북아도다 램성이 티왕첩등이 지고 상봉하야
 심회를 슈작호노라 상공의 화축이느저 감을 생각지 못하니이다 연왕이
 혼연이 제랑과 화림 중에 정좌하고 쇼청련옥을 명하야 술을 가져오라하야
 각각 수비를 마실제 연왕이 이에 련랑을 명하야 형비하라 흔대 램성이
 선숙인을 보고 탄왈 인정이신이라 뜻도 귀는 뜻을 곱다호고 들도
 반월을 사랑하느니 우리는 구진호무리라 다만 도라오는 순비를
 밟아 총 부이나 할지니엇지다시 술잔을 들어 군조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리오련숙인이 불승슈 속하야 잔을 들고 호흔이 만면하거늘
 연왕이 미미소왕 램성은 신인을 너모 조롱치말지 어다하더라
 아이오야 심하고모다 미취함에 연왕이 몸을 닦며 왈 신인이 초례를
 못하고엿 지곤되치아니리오 일즉도라가다시 화축을도고 종용슈작하
 라 램성이 고왈 이제 임의 밤이 깊고 술이 죽하오니 존례를 보중하야
 취침하쇼서 첩등은 바로가느이다 하고 각각 초연이 호흔지니
 연왕이 련숙인의 손을 잡고 중향각에 도라와 장을느리우고 축
 을 밟힌후가 가이 침상에나아가 옥을 안고 향을 품어 그득흔
 풍정이이연견권하야 왈 램은 만왕쇼교오나 는 여 램포의
 라 만리련애에 평슈인연이 막비전등이나 내오히려 램의
 뜻을 허득지 못하느니 배잇느니 램이 중궁에 놀은 실로 누구를
 위하야 노련랑이 슈습랑 구에 티왕 상공이 총곡으로 무르시니
 첩이엇지본심은 휘하리잇고 첩은이에 축용의 데 철네라
 부왕이 부히에 산양하다가 첩의 모야를 찿히상에 완사
 함을 보고 안식을 탐하야 호번가 가이 호후척발연지의
 두괴함을 겁하야 다시 찾지아남에 첩의 모야를 찿

나아스오세됨에 회중에 안고 부왕을 차자가니 부왕이 정디를 축연하야 후궁에 두고져
 한대첩의 피스 양왕첩은 임의 대왕의 버린바라 불행이 일기 혈육을 세쳐던튼을 차자주
 고져음이니 엇지 구구이 쓴쳐 전인연을 요구함이 리요하고 첩을 궁중에 버리고 거처를
 모르오니 후전설이 산중에 신세를 의탁하야 승니도식되였다하나 소식을 드를길이 업
 고 첩은 궁중에 길니 여척발씨의 슈중고초를 비상이 격다가 십여세됨에 모친의 종적을
 찾고져하야 남중산천을 편답하되 못칠리맛나지 못하 고 일기 신인을 맛나 쌍창쓰는 법
 을 비호니 첩의 락성이 늙달나어려서 못하 만중에 늙을 뜻이 업고 궁국을 혼번구경코져
 하든 초의 외홍란성을 진상에서 잠간 봄에 과연 지긋히 심하야 은근이 스모함이 근절하
 야 창법을 다 못쓰고 짐짓 싱금호장쉬되엿습더니 진중에 니르러 바야호로 녀 집을 세듯
 고 비록 추회하니 엇지하 리오의 외에 다시 상공을 띄오니 바야호로 평성의 과망하든 바
 라 슈치를 무릅쓰고 만리 상종하야 부중에 니르렀스나 시속안목이 다만 사람의 안식을
 취하고 모음을 몰나종조기의 아양곡을 듯고 스마장경의 봉황곡으로의 심하니 종적이
 얼을 하 고 신세서 어함이 날로 더흐지라 반야 등전에 삼척상망을 여러 번 도라보아 구차
 투싱함을 면할가 하얏습더니 상공이 이긋치 슈습하시니 첩이 또 호의 심하느바는 상공
 이 첩의 안식을 취하시니 잇가 신세를 가공이 녀이시니 잇가 후일 분심을 알으샤 지긋
 허심하시니 잇가 연왕이 탄왈 제 잔 남지 엇지 전혀 조질을 탐하지 아니 리오마는 내 평성
 에 모음 모르는 녀조를 취하지 아니 하느니 홍란성의 강개렬 협지풍과 선숙인의 청고담

鍾子期
司馬長卿

靈壽閣
百子堂
翠鳳樓
碧雲樓
五陵
新豐

박흔지조를 다 각각 알고 취함이 라 엇지 홀노련량의 구구록록지아닌 심스를 모르리오
 다만 남정하고 도라와 조당에 일이 만코 존당에 밋치고 치못호고로 동방 화축을 거를치
 못함이 라 무슴다른 뜻이 잇스리오련량이 샤례하더라 초시연왕이 삼일 화축을 맛고 부
 중쳐 쇠협축함으로 다 시 데턱을 넘혀 정당령슈각은래메게 하 고 동으로 빅조당은
 윤부인이 잇고셔 호로 빅화당은 황부인이 잇고 후원의 취봉루는 홍란성이 처하 고 그 녀
 허벽은루는 선숙인이 처하 고 련량은 인하야 중향가에 잇게 하니 라 차설 초시는 춘말하
 최라 방초는 처하 고 록음이란 만하야 오릉쇼년이 락화를 밧아 신평슈스를 차즈니 관
 동후동초와 관셔후마달이 맛춤 회를 파하 고 나을 시물머리를 련하야 흥하며 동최마
 달드려 알우리분디 강남청루에 방당이 든이 든재라 부귀공명이 사름을 구속하야 청춘
 흥락이 도로 허무료하니 엇지 우읍지 아니 리오 금일 맛춤 일기 몹고 아름다오며 우리 무
 스하니 맛당히 슈가를 차자 두어 잔을 먹어 울적호흥금을 풀니 라 량인이 대쇼하 고 이에
 관복을 벗고 준마를 달녀 황성대로의 흥진을 밧아 일기 슈루를 차자 각각 수비를 마시고
 다시 두어 곳 청루에 니르러 가 무와 물식을 구경호 후 취흥을 띄여 도라을 시동 최탄왈 황
 성인물이 비록 번화하나 우리 강남을 당치 못하 리로다 우리 는 무위라 변방이 무스호츄
 일성이 이긋치한가 홀지니 흐르느세월을 엇지 쇼슬이 보내 리오 맛당히 일기 쇼첩을 구
 하야 소년 흥락을 재업스니 너는 엇더호쇼첩을 구하 고져하느니 동최쇼왈 제 잔의 처첩을
 나 십분 출중호 재업스니 너는 엇더호쇼첩을 구하 고져하느니 동최쇼왈 제 잔의 처첩을

구하는법이 다각각 다르니 고문대족의 가도를 위하는 자는 유한정정 혼녀 중군 자를 구
 할거시오성에 담박하야 처산을 경영하는 자는 방적을 능히 하고 덩구를 천집하야 밤이
 면잠업고 낮이면 병업는 건강 혼지 어미를 구할거시오스 속을 위하야 성산을 보라는 자
 는 단성이 용렬하나 괴혈이 풍족하야 곡절업는 우음과 별미적은 말슴이다만 다복혼가
 속을 구할지니 날갯혼자는 청춘쇼년이 오방탕호협 혼종적이라 규범니 축의 부덕이 겸
 비 혼부녀는 도로 허우환이 될지니 반드시 헤힐 혼풍정과 민첩 혼성정이 료류장화의 풍
 정을 띄고 율티 화용의 지식이 겸전하야 주루치각에 주렴을 느리고 빅마금편에 거름을
 멈추어 가히 바라보고 가히 천홀길 업는 가희를 구하노라 마달이대 쇼왈 방탕 혼무리
 요괴로운 첩을 구하는 도다 내이 제너를 위하야 일기가 인을 지시하리니 네 뜻이 엿더하
 뇨동최집슈왈 네 안목이 업스니 불과로 변에 주귀를 뜻고 지분을 무릅써 형인을 속이는
 류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야 내게 중미코져하는 다 마달이 쇼왈 네 임의 밋지 아니 할진대
 그 만들지 어다 나는 임의 일기 쇼첩을 심중에 덩하야 두엇스니 타일 독락 혼을 척망치 말
 라 동최왈 엿더 혼녀 지쇼절니 말하라 마달 왈 돌속의 숨은 옥이 오찬이 슬의 꿩이지 아니
 혼 뜻이라 만일 알아보는 재잇서 혼변장 발하야 옥을 다고 뜻이 편죽엇지 절된 가인이 되
 지 아니하리오 동최 초언을 듯고 마달의 소매를 잡고 누구 입을 못거늘 마달이 이에 말하
 야 왈 혼원슈의 슈하차 환련 옥과 선숙인의 심복시비 쇼청은 단성려질이 라 몸이 미천함
 으로 알아보는 재적고 년괴 미성하야 지식이다 뉘지 못 혼 뜻하오니 네 엿지 알니 오 동최

무릅쓸치고 쇼왈 마달아 네 능히 이를 알아보는 나 또 혼내 심중에 먹음은 지오래 나 원슈
 와 숙인의 의향을 몰나 발설치 못하얏더니 내이 제몬져 말하니 너는 누구를 유의하노
 마달이 인하야 남방의 첩셔를 가지고 오다가 선랑노 주를 구하노 쇼청을 뜻든 말을 고하
 니 동최 쇼왈 이 혼 혼놈아 네 충심으로 주인을 구함이 아니라 은근이 가희를 낚금이라도
 나는 맛당히 정대이 취할지니 슈단을 보라 하노고 랑인이 마상에서 서로 대쇼하며 다시 주
 가를 차자 삼스비를 마신 후 각대 취 혼지라 동최 마달을 쓰을고 쇼왈 대장 뷔미스를 쾌
 활이 결단하리니 우리 바로 연부에 가 연왕 씨 뵈옵고 청하야 보리라 마달 왈 우리 이제 술
 이 과취하니 스 괴를 보아 흠이 묘할가 하노라 동최 쇼왈 연왕이 비록 정대 임위하나 풍류
 남지 오쇼년 호걸이라 주석 풍정을 통두이 알으사 허물치 아닐거시오 또 혼우리를 스 랑
 하시니 일기 차 환을 앗기지 아니라 하노고 즉시 준마를 횡치하야 연부에 나르니 엿지 혼
 고 하희를 보라

데스십칠회

동마량장이 쌍으로 쇼청련옥을 장가 들고

董馬兩將雙娶清玉

진연이 왕이 또 처영춘연에 헌슈하다

秦燕二王獻壽迎春

각설치시 동마량장이 연부에 나르러 연왕을 청알하니 연왕이 맛츄후원석디에 올나 삼
 랑을 다리고 록음을 구경하더니 좌위관동후와 관서 휘박괴음을 고 혼대 연왕이 쇼왈 량

장은풍전에동고지인이오또호선숙인의은인마달이라제랑이곳하여서로봄을구애
 할배업스니후원대문을열고인도호라호대동마량장이원문을드러화림석디아래면
 추고동호니연왕이즉시좌우로오름을명호야왕이자리에안진재무비장군의고인이
 라내오늘맛춤료호기로제랑과록음을싸라안졌다니금일장군도또호한인이라호
 치쇼창호게호라량장이황공스양호고제랑씩각각문후호후연왕이다시쇼청련옥을
 명호야술을가져오라호고괴석이활발호야유면취혼에춘풍이그두호거늘동최이에
 고왕쇼장등이금일구구소회잇스와권이호심을밋습고당돌함을무릅서청알호노이
 다연왕이쇼왕소회무엇이노동최왕쇼장등은본디청루에방탕이노든종적이라련은
 이망극호시고상공의작말호심을납스와람직이공후지벌에밋스오니부귀극호오나
 명리홍전에구속호몸이되야화조월석에적막호근심이만스오니모음붓칠곳이업는
 지라구습을견디지못호야천금준마로쇼첩을밧고외무료호풍정을위로코저호오나
 분디군중에합의호재업서량위랑호게소회를알달호고청옥량을천금으로속신
 호야황금옥을짓고부귀형락을호호치누리고저호노니상공은그당돌함을용서호호리
 잇가연왕이쇼왕장군의부귀호업이일세에벧나고또호청춘쇼년이라좌우건졸의은
 충을납고저비라는재무수호지니엇지곳호야아름답지못호천비를습습고저호노
 량장이쇼왕식식은성품이라고량지미를마다고치기를밧드린자도잇스오니청옥량
 환은정묘호호조질이하늘이주신바라필경비복으로늘지아니호리이다연왕이미쇼호

고량랑을보아왕유인이저좌호니상의호야호라호대선숙인이마달을향호야왕내일
 즉장군의급난지풍을힘납어성활지은을갑홀길어업더니이제신근이청호심을엇지
 허락지아니호리오동최다시호원슈를향호야왕쇼장량인이문하에출입호야진퇴주
 선에다름이업스오니마달은임의청비로하스호야소원을드르시고쇼장이호노뜻을
 일우지못호호니엇지향우치탄이업스리잇고호원슈쇼왕관서후는선숙인의보은함
 이니말호배업거니와나의옥비호총의호호비저라빅년지락을엇지일언에경술이호
 리오동최대쇼왕쇼장이비록불감호호나또호원슈씩은공이업지아니호리이다연왕
 상공이슈저로부거호호다가소주사에록림직을밧나샤량패호호시니만일쇼장의인도
 함이업스즉엇지원슈를밧나시리오일로말호호진대금일원슈의더리되심은쇼장의공
 인가호나이다설과에대쇼호거늘호원슈또호미쇼왕장군이더호호치근청호니엇지봉
 승치아니리오마호련옥은부모천척이업는재라나와비록노주지명이잇스나그정의
 를말호호진대형데골옥에다름이업스니비록장군이슈습지아니셔도장척속신호야일
 기귀인을중미호야영화부귀를누릴가호호다니장군이임의좌우에두고저호죽이엇
 지옥비의복이아니리오슈연이나내이제두가지약속이잇서장군의허락을밧은후허
 호리이다동최왕비록열가지약속이라도봉호호리이다원슈쇼왕옥이비록천호일호
 이잇스나내임의쾌히속신호호스니장군이비첩으로천디처못호호지라탁일호호리구
 를호호초아호레함이호호가지오또호호옥을좌우에두신후다시다른쇼첩을구호호야옥으로

빅두음을불으지말게함이두가지약속이라장군은조량하여쇼셔동최대쇼왈이논
 쇼장의소원이라원슈장전에엇지두말숨을하리잇가홍원슈다시추연왈우리노쥬장
 군과동향지인이라만스여성이신의를일치아니하고셔어진인연을다시니어그정리
 를말할진대심상흔노쥬와비치못할지라좌와거거와진퇴쥬전에슈유불리하여더도
 나를떠날뜻이업고나도더를니즐길이업스나녀조유행은귀천이업느니이제일쥬에
 장군을위하여속심함을허함에조연심서창결하여말숨이장황함을세듯지못하오니
 비라건대장군은고단흔신세를불상이보사스랑하쇼셔제던성이심이투미치아니하
 니혹시장군의은총을일치아니할가비라노이다동최개연왕원슈의말숨은낫낫골
 절에스못쳐비록목석이라도감동할지라옥이만일이뜻을받지아닌즉향복지못할것
 이오쇼장이이말숨을저비린즉또흔경박흔무리될가하노이다인하여비쥬를나와량
 장을디접흔후량장이물너감을고하나다시후원문을열고문외에나서며동최마달을
 보아왕홍원슈의의향이더러하시니우리맛당히구를포장하여원슈의뜻을저비리
 지말나라하더라익일란성이손삼량을불너동마량장의말을전하고길일을지촉하니
 량장이이에기구를조초아잡패치단으로동일남치흔대란성이선숙인파란성부를슈
 소하고형례할셔비단장파슈노흔자리에비취금원앙침을렷히포진하고란성부시
 비가동을풀어록의홍상으로향축을받들어쌍쌍이세웠스니비록쥬문갑대의륙례를
 조초아천영하는흔례라도이에서더할배업더라란성은련옥을단장하고선숙인은쇼

청을장속홀시각각지조를다도아락미장에신월미를그리고타마게라조디를삼엿
 스니슈식패물은쥬취어리엇고슈요라군은금쉬회황하여옥량의정묘함은일지히당
 이이슬에저젓고청량의아담함은설중향미향풍을루설하니츠시구경하는재란성부
 를덥허문전이열요흔중대장군되던풍이일디장신을거느려좌익이되고풍진의동고
 하든막료제장이일제이니르르골목에거매물설뜻하고오영군졸이군악을알외며문
 외에등디하니황성중남녀로쇠데일방동구에구름되듯구경하며짓거려왕이러흔
 인은고금에드물다하더라아시오동마량장이각각응복을납고대완마를루고거기쥬
 종이대로를덥허란성부문전에물을느려쇼석에나아갈시홀연받기들네며수심명기
 네웅장성식으로드러오니원리동마량장은청루의호협흔쇼년으로쇼첩을구하여홍
 란성의슈하차환과성흔하는소문이자자함에황성청루의모든기네구경코져음이러
 라일제이연석에위립하여청옥량량의조식을보더니제기서로보며차탄왈이논가위
 던싱려질이라우리밋지못하리로다하더라란성이제기중량인을명하여한훤지례를
 행하라하니양기기네흔쌍근잔을들고맛잇는술을그득부어공교흔우음과빗는말숨
 으로풍정을보내며희학이란만하니량장이희불조승하여관동회관서후를보며왈마
 달아네청량은던성이다겁하여너를보면별기를잘한다하니라일맛당히가되임속하
 러니와우리옥량은너무팔팔하여쥬년문하에나를흔번눈을거듬써보지아니하니도
 로혀나의근심하는바라하더라청옥량량의쇼례를조고외당에나아감애대장군이하

로모든죄의이부분이짓거리며동상고례를도식한다하늘란성이죄우를명하야외
 당에연석을비설하고유찬을보내며기악을드러일장달랑하니구경하는재란성의풍
 류슈단을칭송치아니리업더라량장이이에량량을다리고스데로감을청하니란성이
 옥량을보내며천하게하에느려교령을느리오며왈내너로더부러동사미천호인성이
 라련은이망극하고연왕상공의슈습호신은덕을넘어금일영회구진하니너도부피업
 서호마더련련호교훈을드를곳이업스니필경필계하야무위부조함은귀천이일반이
 라네창가에자라비흠이업스나평성을조심하야내몸에육됨이업게하라우리랑인의
 노주지명이오날뿐이니또호고정을저버리지말라련옥이할루왈련비의명종모말이
 무비랑조의주신바라죽기전노주지명을엇지다듬이잇스리오하더라이날북허옥랑
 과청랑이비록공후귀인의쇼실이되엿스나연부에너른죽의상을것고모든시비들조
 차진되주선에노주지례를공손이잡아일호티만함이업스니연부상해모다칭찬하며
 신의를탄복하야련옥을옥랑이라하고쇼청을청랑이라부르더라연왕이란성을보고
 왈청옥랑비의혼인을엇지그리오란이하노란성이쇼왈첩은미천호종적이오랑비는
 미천호중더옥미천호인성이라첩이평성에초례성혼치못호호를금일랑비에게신설
 하니이다연왕이미쇼하더라차설광음이출호하야중추귀망을당하니이날은래후탄
 신이라던지대연을경영호실시진국공취본국기악을별로썩아나르니원리황래취공
 주를만득호심으로편이하시고공공의성품이또호풍류호방하야남조괴상이잇스니

潘貴妃 鐵貴妃

老萊子

호상말하되부녀의투괴함은장부의괴상을색금이라하야진왕을위하야비빈궁첩을
 썩아죄우에두게하니그중가무문장과공마지지를겸전호재수십인이라그중특별호
 재삼인이니그하나혼왈반귀비오돌재는왈귀비오셋재는왈털귀비라공취모후탄
 신에즐기심을돕고저하야본국기악과삼귀비를부연케하니련지쇼왈현미의구일풍
 치오히려죄치아니로다하신대공취왈신이로리조의롱추무반함을호추하야모후의
 혼번우의심을돕고저함으로이다대회쇼왈녀이어려서북허총명다저함애선대스
 랑하야미양회중에안고글즈를르치시며후궁녀를싸라후원의연무함과군중의풍
 류함을구경하고일일이모방하야놀기를묘화하더니이제나히임의이십이되엇거늘
 오히려현대의구습을곳치지못하도다공취쇼왈진왕이황성으로도라와연왕의쇼실
 호호탈과만왕의쇼일지련의무예조식을칭찬하니이노엇다호사름이니잇가래회미
 쇼왈이느너중호길이라문장조식과무예가무를무불동지하니삼귀비로당치못할가
 하노라하시니공취대희하야탄일을글지하야기드러더라익일련지파조하시고특별
 이연왕과진왕을머머러편면에슈작호실시주찬을나와군신이미취함에련안에화기
 를씩샤량왕을보시며왈경등의년과이십일제라짐에게스년이아래되니맛당히아오
 로대접할지라군신의의를파탈하고가인형데우쳐무간케하라짐이경등으로포의로
 맛나지못하고호상례모를도라보아총총호쇼반에미진호흥금을퍼지못함을호하노
 라량왕이황공돈슈하거늘련지다시하교왈명일은래후탄신이라짐이만승지부로스

히지양을 뜻코치 못함은 저연국개다스고래휘저녀이인을만년에두시니짐은맛이
 오진국공주는돌재라진국이요원고녀저유행이오래입조치못갓더니이제진국
 기악을다리고공쥐와로리저의무반하는효성을효축고져하니명일장춧종실부인파
 명부비빈을궁중에모아부연게하려니와외조를말할족진왕은저저지멸에잇고경도
 또흔외인이아니라래휘마씨로더브리중표형데나정의동기에지나시니경은죽마씨
 의손제래래휘경을스랑함심이천서와다름이업스시니명일진왕과코치현슈하는디
 나아가모후의총의함시는뜻을저브리지말라연왕이돈슈응명하거늘진왕이미쇼함
 며던저씩주왕신이뜻스오니연왕부기악이황성중유명하다함오니명일연서에청함
 이요할가하는이다상이쇼왕집이의봉명을철과흔후일절풍류를갓가아니함으로
 교방법악이성양치못할뿐아니라궁중에불가불기녀를쓸지니연부기악을부연게하
 라연왕이명을받고물어나집에도라오니가궁인이래후의명으로또흔연부에너르러
 래때를청하야왕우리는뜻은이라허물할배업스니편복으로결중에드러와정회를퍼
 게하라함신대래메스양치못하야명을받조오니라이때연왕이취봉루에와란성과선
 속인을보고왕황상이명일기악을청하시니아니봉송치못할지라금일부중기악이엇
 더함요란성이쇼왕첩이아싸궁인의소전을뜻스오니어미진국공쥐풍류호방함사삼
 귀비외일등기악을다리고부연함사장춧연부기악과견우고져한다함니상공은엇
 지하라함시는니잇가연왕이웃고인하야진왕의앙달하든말을전하며왈이느랑등의

일이라랑등은강남청루의일흔난명기로풍류문장이당세에독보함을뜻고진왕이흔
 번비교코저함이니명일흔번이과지못함도랑등의슈치오승전곡을알외음도랑등의
 슈단일가함노라란성이웃고즉시부기수십명을뽑아취봉당에서종야스습할씩선속
 인이쇼왕풍류라함는것은일시쇼창할씩름이니곳함여눔을이과여무엇하리오란성
 이쇼왕랑은청춘의상으로너모로속흔래말라첩은평성에호승지벽이업스나라인에
 게양두할모음은업노라함고친히단관을쳐가곡을교훈하며관현을잡아풍류를무르
 쳐예의등등하니연부제기또흔괴운을내스스로티만치아니함더라란성이다시란
 성부에분부하야수십필취단을가져제기의복식을신비함되일일이간검하야강남풍
 속을모방하니그사치와번화함이황성교방으로당치못할너라익일런저영춘연에빅
 관을거느려진하현슈실시릉준옥비로현슈하는자리에나아가사만년비에류하주
 를받들어만세를볼으시니모든궁내일시에아올나산호하는소리풍류와섯겨운쇼에
 료랑하더라던저이에연상에오르샤래후를되서동향좌함시니진왕이또망포면복으
 로머리에취화를뜻고잔을받들어만세를볼으니진국기네일시에진국풍류를알외고
 연왕이또강사포에동던서디를씩고취화를머리에셋고잔을받들어만세를볼으니연
 부제기일시에연부풍류를알원후진연랑왕이편연에올나서향시립흔대문무빅관이
 또흔일시에북향비례하고만세를볼는지하지례를뜻고차례로부복흔대던저좌우를
 명함샤진찬함시고어비법슈로제기를명함샤형비함야궁중법악과랑부풍류를일시

에 못치알와 여일장을딜랑하고 박관이 되출함을 화회에 종실대신의 명부비빈을 거느리사니 반을 츠려 현슈하실시엇지 하신고 하회를 보라

데스십팔회

별슈를 마셔량왕이 만히 풍류진을 싸호고

飲罰杯兩王暗鬪風流陣

각설츠시황휘머리에철보쥬취궁양계를단장하시고몸에만화금루홍슈장복을넘으

咏蓮燭諸娘爭呈七步詩

루족덥군을넘고셔호로서시니동반은대신명부이해츄례로설시연왕이왕작이더호고로윤황량부인이화관장복으로압반하고홍란성선숙인련숙인은취교왜라게에금루슈요의를넘고뒤를쓰르니위부인소부인과종실비빈이일제이복식을갖초아동셔반을난화만세를볼으며잔을들어현슈하니환패는정정하야풍류소리에섯것고향풍은분분하야상셔의구름을볼더라현슈지례를못침애대휘모든부인을던상에오름을명하시디니가궁인이고왈연국래매등반치못하고박과왔다하거늘대휘반기샤박비인견함을지축하시니래매즉시랍던문후호후제부인이좌우시좌함에대휘혼연이우으시며연국래매를보샤왈우리는셔산의지는하호혼인성이라미양성각이근절하더니금일이못치봄이엇지도로혀서어치아나리오래매티왈선첩은옥련봉하의나물키

는출패라던은이망극하샤외람이잔취에참여하오니치신홀곳을아지못하느이다래취미쇼하시며홍란성선숙인련표괴를특별이갓가이오라하샤집슈하고하교왈선련량량은풍진환란의숙면이되엿스나홍란성은다만그성명을듯고얼골을이제야보는도다진국공취래후씨문왈엇던사람이홍란성이오니잇가래취미쇼왈녀의일죽란성을보지못함을혼탄하더니이제알아낼쇼나공취웃고좌상을들너보다가란성을마르쳐왈이엇지홍혼랄이아나니잇가래취대쇼왈녀의조감이타월하도다서로한현저례를베플라하신대란성이추파를잡잔홀녀공슈를봄애슈미화안의광취들호혼중영발호괴상과출류호조석이금지옥업을불문가지라래후슬하에갓가이피셔안젧거늘란성이즉시몸을니러공순피석호대공취안증을명하시고쇼왈내량의성명을우뢰코치드러더니진짓명불허독아로다다시련표괴를차자일일이인스호후삼귀비를늘너제량을외이시며왈이논원방사람이라삼랑의풍정을듯고원일견지하느재니각각서로인스하라란성이삼귀비를봄애반괴량비는월티화용이십분아릿답고그중얼귀비논신장이팔척이오괴상이쥬슈하야현현장부의풍도잇더라래취다시선숙인을보샤쇼청을차즈시니가궁인이쇼왈쇼청이그스이관셔후마달의쇼실이되야금일연부차환지절에잇지아나하니아다래취대쇼하시며곡절을무르신대가궁인이이에전후지스를일일이고왈첩이외간소문을듯스오니당일란성부의초례홀제란성파숙인이랑비를샤처럼게장속하야괴구의찬란함파위의의번화함이천고의드물다하더이다래

휘더옥쇼왕이논반드시란성의쇼년에과로다동초마달은국가의유공호신해라량비
 임의쇼실이되얏스니엇지오날연석에불참하리오셀니브르라하신대아이오청옥량
 량이즉시입시흠개래취즈제이모시고왕너의임의공후쇼실이되엇거늘엇지구일복
 석을곳치지아니하느뇨옥이디왕래후량량이우에림하시고제위부인과공취석상에
 계시오니천비엇지감히전일과다름이잇스오리잇가래취더욱괴특이덕이시더라
 지외쇼진하를밧으신후좌쇼로진왕의손을잡으시고우슈로연왕의소매를잇그려영
 춘연에다시나르샤왕경등은일실지인이라又치모후를되셔금일즐기심을돕게하리
 라하시고궁녀를명하야래후침연에주렴을드리워명부비빈은렴년에래후를되시게
 하고런저렴외에면좌하시니좌편에진왕과우편에연왕이되셨더라런저연왕을보시
 며왕일가의칠촌척은멀지아니흐척분이라경이진국공주와못볼배업스나법문쇄절
 이스가와다른고로도토혀서어흠이만도다진왕이번화호우음으로연왕을디하야왕
 공주는금지옥엽이라내임의로못하거니와데에삼기쇼첩이잇스니량인은본디장
 안기네오일인은본부량가녀저라가무문장과궁마지저잇서죽히형의가희를디덕홀
 지니구경흠이엇더하뇨연왕이스양호대진왕이웃고런저씩주왕신이듯스음애연왕
 이십년출장임상하야쇼년호결로풍류파인하다하더니중시이又치졸하오니장부의
 괴상이적음을알니로소이다상이대쇼왕집이경등을좌우에돕애쇼반에오른죽동량
 주석이오스스르디홀죽붕우형데라금일풍류진전에승부를구경코져하노니너모슈

량치말라진왕이이에삼귀비를부르니삼귀비즉시렴외에나와진왕을싸라시립호대
 진왕이또연왕을보아왕형의쇼이를내임의보앗스나풍진시석에안면이충충하니엇
 지다시즈랑치아니하느뇨하고궁녀를명하야삼량을부르니홍란성숙인련숙인이
 또호렴외에나와연왕을조차시립호대진왕이이유히보고쇼왕형의쇼실이비록아름
 다오나데의털귀비의쾌활흠을당치못홀지니이진국가인이라평칭에겨구하기와
 치마하기를도화하니형이장춧누고로써디덕고저하느뇨연왕왕대왕이포장을미리
 너모하시니그중정이갑하심을념려하느이다진왕이대쇼하더라런저이에진연량부
 제기를던상에오르라하시고왕집이비록음률에총명이업스나쇼박은아노니이제풍
 류를드러우렬을명하되승부를보아지는자는대비로써량왕을벌하리라량왕이돈슈
 하니던저즉시진국녀기를보샤예상우의무를알와라하시니진국녀기일시에풍류와
 춤을알외니몹은곡도는운쇼에소사나고완만호소매는향풍에느부쳐청아담탕하거
 늘던저칭찬하샤왕진국기악이이에밋치니궁중법악으로당치못하리로다또연부녀
 기를명하샤예상우의무를알와라하시니원리우의무라하느풍류곡되완완하야춤추
 기지리하고저조를나타내기어려온고로던저짐짓다又치하심이라연부녀기의상을
 정돈하고무석에나아가소매를드리우고동서로난화보하스를알외니던저묵연이보
 시더니바야흐로보하스를변하야예상곡을알외며취슈를떨쳐선선이춤추거늘던저
 옥슈로서안을치시며칭선하신대량기의한아흔거동과완만호소매로비회편천하야

唐明皇 楊太眞

료량호환패는일궁호애공중에건이는듯표요호의상은광한면의선내풍편에느리는
 듯만향을표고하더니데삼장에니르려예상곡을다못치지못하고제기홀연쥬현을올
 녀황성별곡을알외니스죽이덜랑하고무쉬령룡야변화호곡도와화창호음을일
 장을합작하니일천궁네일시에겨절하며슈무죽도호음을세듯지못하더라던지대열하
 샤연부제기를보시며문왕내야싸우의무를알외라하엿거늘녀의보쳐스를문저알외
 은무삼곡절이노제기왕우의무는넣적당명황이중쥬월야에양래진을다리고호교에
 올라나광한면을구경할시월중우녀의우의무를보다가한피배에스모침에다보지못하
 고도라와그곡요를의방호이라처음보쳐스는호교에올을제지음이오다음우의무는
 광한면에너름이오곡요를못지못호은치워오래보지못함이오황성별곡으로못침은
 궁중에도라와선경이비록호나여민동락호를즐거워함이니이다던지키용칭찬왕
 풍류와춤이아름다올뿐아니라또호풍간호는뜻이기중에잇스니이반드시마르친
 재잇도다하시고란성을보시며미쇼하시더라즉시좌우를명하샤술을가져오라하야
 대비로써진왕을벌하시고다시일비를들어연왕을주샤왕벌이잇슨죽상이업지못할
 지니경은스양치못하리라하시고인호야쥬찬을나외제랑과제기를먹이시니진왕이
 쇼이주왕신외나라이북방에갓초와호동주졸이쇼용시를노래하고려항부녀는장성
 곡을화답하야강한호풍속이일호무미호과미업스오니우의곡은그소장이아니라보
 라건대반괴량비와호선제랑으로각각호가지풍류를가져소장되로지조를비교코져

하느이다상이미쇼하락하신대진왕이량비들보며왕과인이심구제에도번을쳐항복
 밧고평성장락이능에게굴슬함이업더니금일풍류진에대패하야연왕압히항번을세
 지니이노랑등의슈치라랑등은제조를가다듬어이붓그림을셋게하라괴귀비쇼왕첩
 이무능하와다만랑조군중에충슈하오니채적을잡고괴를들너휘하의지휘호심을싸
 림이라조용을결단함과승부를다도심은군스에게잇지아녀장슈에게달님인가하느
 이다던조와진왕이대쇼하신대연왕이우으며진왕을조롱왕강호장슈는약호군서업
 다하니대왕은너모분하야말으쇼셔분호군스는패호는법이라다시분국에도라가장
 락을비호고저조를닥가오쇼셔진왕이대쇼하더라이때입의황호이되고중쥬명월이
 동련에소사오니만리장공에일덤진에업는지라던지후원에자리를옴기샤포진하시
 고청능보장을베풀어태후를되셔명부비빈과조치월식을보시며풍류를드르실셔진
 왕이천히석상에노힌아장을다리며문저일곡을드니그소리호방패활하야좌상호치
 를십분고동하거늘련지미쇼왕경의풍류슈단이비록번화호음은죽하나슈법이잡간심
 소하니진짓귀인의풍류로다듬기를못천후즉시아장을밀어연왕을주며일곡을청호
 대연왕이샤태왕복은본디괴졸호선비라진실로음물에무지하야무간이청호심을봉
 승치못할가하느이다진왕이웃고좌우를명하야술을가져오라하야대비에마드부어
 들고던조씩고왕연왕이레모를조중하고저조를앗겨폐하의즐기심을돕지아니하
 불가무벌이라벌쥬를먹이느이다던지웃고하락하신대연왕이량슈로밧아마시고다

시일비를들어 고왕진왕이 무례하고 호란호수단으로 비홀업는 풍류를 가져던 청을
요란하게 오니 불가무별이라 별주를 먹이느이다던지 웃고 허락하고 궁녀를 보샤
왕량왕이 별주를 빙자하고 서로 마시며 좌상에 안즌 형은 일비를 권치아니하니 불
가무별이라량비주로왕을 별하라신대량왕이 일시에 마시니 호란성이 넘히섯
다가나아가 다른 잔을 가져다가 일비를 받들어 탑전에 드리며 고왕들과 운이 차고 추애
셔늘호오니 일비를 진어호심이 도홀가호느이다던지 혼연이 밤의 사왕란성은 가부의
허물을 잘 김는도다량귀비는 엇지 권치아니호느노피귀비또호잔을 들어 드린대인호
야 괴죄교착하고 비반이랑자호야 들을 향호야 군신이 미취함에던지 제랑을 보샤 풍류
를 지추호신대반괴량귀비먼저 비파와 보슬을 다리며 일곡을 알외니 쇼현은 통롱호고
대현은 령령호야 옥반에 구슬을 굴니는듯삼경창외에 일킨 비며려지고 격창의 네 속마
음을 하소호야 변화호중의 원호고딜탕호중강개호야 슈단의 정묘호음들의 청신호
이제기의 밋칠비아니라던지 격절청찬호시며 호선량량이 척척탄복호니 진왕이 대희
호야 연왕을 보며즈랑호는 빛이 비우에나타나더라량귀비 두기를 맞침에 호선량량이
이에 일쌍 옥덕을 가져향월호야 알연이 일곡을 알외니 하성은 청아호야 좌상에 들니잇
고상성은 격렬호야 반공에 스 못치니 단산처봉이 웅창호화호고 청련박안이 단속처절
호야 추풍이 쇼슬호고 월광이 교결호니 모든 궁내일시에 추연변석호며던지 쾌활함을
칭찬호시더니 량량이 다시 취미를 쓸고 단술을 모아즈음물을 합호야 일쌍 옥덕이 호소

弄玉 子晋

리로셔겨져삼장에니름애목은곡되요요불절호야 산천이상응호고 풍운이니러나롱
옥의 동쇼는 백공에느리느듯조진의 성황이 일하에 료량호니 원중에 잠든 학이 일시에
길이올며우의 현상으로편편이느려와 두느래를 펼쳐들고 쌍쌍이 비회호며 선선이 출
추거늘런지 망연량구에량왕을 보시며 단왕집이 천리희상에부절업시구선호도다량
량의 옥덕은 인간소리아니라짐으로우화등선호뜻이잇서금야에표연이 옥경요덕에
안즘호도다호시더니 량량이 불기를 못고 옥덕을 노흠애오혀려늘은소리공중에 들니
여반향을 쓴치지아니호더라던지 우시며량왕을 보샤왕량귀비의 풍류아름다오나
고셔에운쇼쇼구성에봉황이리의라호니 풍류신인을 감동치 못호진대엇지 비슈의 술
무흠이잇스리오량량의 옥덕은짐이 우렬을 평론호배아니라 일쌍 박학이이제증참호
얏스니 다시진왕을 별하라신대진왕이 잔을 받조와 손에 들고 주왕신이 만일이 자리
에연왕을 시별치 못호죽고국에도라갈 뜻이업스오니이제다시 풍류로다도지 못호지
라제랑으로각각일수시를 지어 비교코저호느이다던지 허락호신대연왕이 주왕가을
들이셔늘호고 밤이 임의 김헛스오니연석을 다시던지로음김이도홀가호느이다던지
조츠샤곳쳐영춘년에던좌호시고시장을 비설호서츠시진왕이 비록호번늘기를 위함
이오승부를결우고저아니함이나쇼년지괴로두번량패호해심중에분호야만히심
각호되호란성이 비록다지호나일즉장슈로무예를일삼앗슬거시니시물에엇지민첩
호공비잇스리오호야 일계를 칭각호고반괴량귀비와만히약속왕련지맛당히랑등

과홍선량랑으로글을지으라홍실거시니랑등은마리싱각야창졸간초솔흙이업게
하라괴귀비쇼왈글데를모르오니엇지미리지으리잇고진왕이침음왈어전의금련족
을두고철보시를지을가하노라약속을못고도로죄에안젧더니던지제랑을부르샤각
각치전필목을주시고글을지으라하시며랑왕드려글데를명흙을무르신대진왕이짐
짓싱각하노레하다가왈월하의풍뫼뵈치고축하의시장을다시비설하엿스오니어전
에노흔금련족으로글제를명하심이드홀가하노이다던지허락하신대진왕이우주왈
시를의지조를보고저홀진대반드시그민첩흙을취홀지니철보시를명하심이더욱도
홀가하노이다던지칭선하시고일기기녀로답전에철보를거르라하시고제랑의홍치
를돕고저하샤연상에북을달고흔침에일기네철보를거르드러가니치전이임의
셔상에비발치듯떠러지더라괴귀비는륙보에지엇스니왈

다섯밤에들이홍상그득하노

세봄에뜻이죄잔치아니하더라

몇번이나금란면에

것어혹스의반에보내노고

반귀비는철보에지엇스니왈

구중에밤이바다와갸호니

몬져촌심의북은거슬로하얏더라

五夜月恒滿

三春花未殘

幾度金鸞殿

撤送學士班

九重夜如海

先吐寸心丹

만괴이제겨를이만호니

오경찬데니르지아니하얏더라

홍란성은륙보에지엇스니왈

밤이깊헛는디북은조셔를초하노

늑은빛이취석장막에떠러지더라

장명하노실을췌야가져

인군을위하야아롱진옷에슈를눅더라

선숙인은철보에지엇스니왈

별이옴김애롱루췌글넛고

바람이니름애샤향내암재차더라

밤마다군왕씩갓가오니

마뒤만흔모음이더러드시북엇더라

각각일흙을봉하야드리니던지보심애제랑의글이다아름다오나기중흔시더욱절창

이라심중에썩으시고랑왕을주시며우렬을명하라하신대진왕이봄애흔글이저셔령

롱하코의취정밀하야창졸간소작이아니라또흔륙보에지엇거늘싱각하되이논반드

시괴귀비의마리지은바도다연왕늘보며왈판인의우견은이글이데일될가하노라연

왕이다시봄애과연지정이아름답고의셔괴이하야심분란성의소작인듯하거늘심중

萬機今多暇

不到五更寒

夜深抄丹詔

餘光落粉幃

穿取長命縷

爲君綉班衣

星移虬漏轉

風到麝薰寒

夜夜君王近

寸心似許丹

에싱각하되량량이임의두번이괴였스니이번은양두함이도도다하고미쇼답왈이글
 이비록아름다오나금련축을덜지었스니우견으로보건대괴도금란던철송후스반이
 라흔글이심히착대하야데일이될가하노라진왕이추언을듯고더욱의심하야싱각하
 되연왕의조감으로엇지이글이데일임을모르리오반드시량량의소작이아님을알고
 호승지심으로저희흠인가하야쇼왈조고로시가의진담을괴하고청신흠을취하느니
 금련축시의철송후스반이라하노글귀는로싱상담이라무엇이신괴하리오하야서로
 다도기를말지아니하거늘던지두글을가져오라하샤이욱히보시다가왈진왕의말이
 을도다금야금련축의슈반의삼지진짓착대의라하시고쥬팔을들어친고하시고데일
 로썩으샤일흠을써해보니이에홍란성의글이라진왕이대쇼하고철송후스반이라흔
 글을써해보니이논괴귀비의글이라량왕파던지모다대쇼하시고궁녀로일비를가져
 진왕을벌하시니진왕왈신이츠비를또먹으면더욱분하오이다하고괴귀비와약속흔
 말을고하던지절도하시더라아시오재벽루쉬싼어지고북두성이동으로기우러재
 벽빛이창창하던지파연하실시진왕이주왈신이금야삼전삼패흔슈치를신설할곳
 이업스오니명일다시상림원에겨구장을다고제량과궁녀를다려다시지조를결워볼
 가하느이다던지흔연이웃고하락하시고제량과명부바빈을궁중에머머려류속하게
 하시니명일또엇지흔고하회를보라

데스십구회

털귀비물을달녀치구를치고

홍란성이갈을춤추어공작을희롱한다

鐵貴妃馳馬擊彩毬
紅鸞城舞劍戲孔雀

각설진왕이쇼년에괴로세번패함에엇지분함이업스리오이에태후씨뵈옵고청왈신
 이금일풍류시쥬로제량의지조를결우문실로승부를위함이아니라경연화괴를돕스
 와흔번우으심을받람이나삼전삼부흠은엇지벗그럽지아니하리잇가명일다시후원
 에겨구하야설치코져하오니궁중시녀중물잘드는자수십명을빌니쇼셔태휘쇼왈겨
 구하노슈단이싱소할가하노라진왕왈진국풍속이겨구를일삼고털귀비는군중에유
 명흔재오니궁녀를지휘하야잠간크친죽히득하리이다태휘하락하시니익일진왕
 이상림원에겨구장을다고던조와태후황후를피서디상에던좌하시니보장과쥬렴을
 드리워명부비빈이모다구경홀시삼천궁녀일시에응장성식으로겨구장을들너구름
 곳치모히니일좌후원이뜻발을일워취쇼장은쇼일에쇼요하고환패소리는풍편에
 료량하더라제량이각각괴복석을장속하고겨구장에오르니털귀비는진국제기와
 반괴량귀비를거느려서호로섯고홍란성은연부제기와선련량을거느려동으로서
 매진국공쥬다시궁녀수십인을썩아털귀비를돕게하나라츠시던지디상에림하샤연
 왕을보시며왈겨구라하노름이어느때에나스며무엇을의방함이노연왕왈남방에

스즈라하는증승이잇스니나면셔목아래호봉치달이달녜스니그일홈은왈귀라하니
 스즈의삿기어려셔부허쥬야로구를희롱하야발로차며움키여증승잡는법을스습하
 는고로증승중스즈의용뎡을말홈은비단그힘을더홀썩아니라발로차며움키여증승
 잡는법이출쥬호연괴라후인이이들의방하야겨구를지어내니드리로차는것이왈각
 귀오손으로보는것은왈적귀라이를인하야참검쓰는법을스습하더니당나라에니르
 리이노름이성형하야저상귀인이왕왕이겨구장에올나저조를다토니비단실쥬호죽
 면목을혜상하야스망지환이잇슬뿐아니레모의히연홀과거조의위티홈이정인군즈
 의일삼을배아닐가하느이다던지미쇼하시며좌우를명하샤겨구하는제구를가져오
 라하야보시니나무를둥굴게짜겨슈노흔비단으로곱게삿스니이논이에치키오막대
 를아로샤여금벽단청으로찬란이단청호후그똥희상모를달앗스니이논이에치봉이
 라동서로편을갈나치봉으로써치구를밧아서로치다가막지못하코싸에떠러진죽승
 부를판단하니점점공교호슈단이더하야치며밧는법이신출귀몰하더라연숙인이란
 성드러가만히문왈랑의겨구슈단이엇더하니잇고란성왈비록조박을드렸스나성소
 홀가하노라련숙인이쇼왈겨구는남방노름이라첩이일즉비홈이업스나이번은양두
 하야털귀바의슈단을밧내여좀이도홀가하느이다란성이쇼왈나도이므음이잇스나
 미양당호죽호승지심이압서니엇지하리오하교량인이서로대쇼하거늘괴귀비비라
 보고쇼왈랑은무엇을웃느뇨란성왈련숙인이겨구하는법을못기대강그르쳐도알

아듯지못하기로웃느이다털귀비쇼왈쌍창쓰는재엇지겨구홀줄모르리오란성이타
 인은속이려니와첩은속이지못하리라아오디상에복을달고호번침애제랑과모든
 기네물게을나동서로갈나서고두번침애일제이라삼을거두치며치봉을번득여용약
 하고세번침애일기너기물을노아오며좌슈의치구를들어공중에더지고우슈의치
 봉을번득여호번침후물을돌녀다라나니그속홈이바람긋더라치귀공중에소사란성
 의머리우에떠러지려하거늘란성이웃고물을돌녀두어거름을물녀서니연부제기일
 인이치봉을들고물을달녀나와호번밧아침애털귀비쇼왈란성의슈단이이긋치로숙
 하뇨하거늘그치귀입의도로소사괴귀비두상에넘어가니뒤의섯든궁녀와랑부제기
 인하야서로밧아반향을침애분분호치봉이북소리를응하야비발치듯요란하코망망
 호치귀반공에표탕하야별긋치호늘니니털귀바이윅히보다가므음이가렵고심신이
 활동하야이에물을달녀나오며진국제기의치봉을달취하야랑슈쌍봉으로치구를밧
 아우슈로치며좌슈로밧고좌슈로치며우슈로밧아일장을희롱하다가홀연양류긋호
 히리를호번곱히며좌우쌍봉이번득이는곳에치귀반공에빅여장을소스니초소위곤
 풍귀니바람긋치니러남을닐음이라련숙인이또물을달녀나오며슈중치봉을공중에
 더짐애치봉이반공에놓히을나느려오느치구를밧아호번근두침애치귀다시소사운
 간에묘연하거늘좌우제기일시에소리쳐칭찬하니초소위류성귀니호르느별긋홈을
 닐음이라털귀바이에성기를내여물을달녀나오며랑슈쌍봉으로치구를밧아동으로

치고서으로달니며셔호로치며동으로달니더니홀연쌍봉을쓰르쳐호민덜이침애
 처귀살곳치건너와란성의압히떠러지라하니이소위벽력귀니그급함을닐음이라
 란성이웃고물곳비를거스려잡고요동치아니호며처봉을높히들어떠오는처구를번
 개곳치떠러마전에떠러침애그쳐귀다시뛰여두어길을숫거늘란성이처봉을들어호
 번쳐공중에망망하니초소위춘풍귀니봄바람이싸에서너러남을닐음이라덜귀비바
 야호로홍란성련속인의슈단이출중함을보고만히소매속으로또일기처구를내어
 공중에더지고쌍봉을들어공중에더짐애일쌍치귀란성을향하야일기는넙호로드러
 가고일기는넙히소사두상을향하니란성이미쇼하고즉시제기처봉을아셔량슈쌍봉
 으로느러지는처구를떠러싸에떠러치며랑이쇼와약속업는처구를받으리오호거
 늘덜귀비또호호대쇼하고쌍봉을거두며샤례와란성의격구슈단은첩으로당치못홀지
 라하를며정묘호호우익이잇스니엇지덕호리오이제다시제랑을물니치고다만우리
 량인이쌍구를받아조응을결함이엇다호료란성이허락하고이에덜귀비와쌍슈처봉
 을가져장상에나아가물을달니며평성비흔바를다하니란성의경첩함은늘낸제비뺏
 송이를치는듯귀비의쾌활함은급흔바람이홀왕홀리호야일쌍치귀곳치소스며들
 곳치떠러져반향을다로나승부우렐을불분호거늘던조와랑왕이덕상에서보라보샤
 모다칭찬불이호더니홀연덜귀비의쌍봉쓰는법이초초설고란성의슈단이더욱활동
 호야스스로것잡지못호니원리덜귀비는격구호는법을히득홀씩름이오란성은검술

을검호야쌍검쓰는법으로써쌍봉을쓰니덜귀비엇지더당호리오란성이이에슈중쌍
 봉을마전에더지며쇼와조되재불승이라첩의힘이진호고저죄공호얏스니귀비의련
 속흔슈단을당치못할가호는이다덜귀비쇼와란성의지조는인력으로말할배아니라
 이에짐짓겸양지품을빛내샤첩을위로코저호시니첩이엇지모르리오초시진왕이또
 혼란성의양두호는뜻을미미히우으며짐짓대비에법주를가져연왕을벌호야와래저
 패제로다과인이이제설치호얏도다호거늘덜귀비압하나아와고왕이호란성의거죽
 패함이라조랑홀개업슬가호는이다진왕이쇼와거죽패함도패함이오진기패함도패
 함이니득첩함은일반이라호고진국제가로군악을알외여승전곡을닐후격구장을
 파호니진국공쥬다시제랑을모아공중에놀시삼귀비를보아와랑등이무용호야루초
 견패호니내이제맛당히쌍검을천히잡아시श्यक무릅쓰고설치호리라호고좌우시녀
 를명호야쌍륙을가져오라호야유부인과편을갈나유부인은홍란성션속인련속인을
 거느려호편이되고진국공쥬는덜귀비반귀비과귀비를거느려호편이된후공쥬유부
 인과약속할만일부인이이권죽호잔술로나를벌호고내이권죽내또호일비쥬로부인
 을벌호리라부인이미쇼호고서로티국호야공쥬문져사호를더짐애덜귀비호마호고
 유부인이또사호를더짐애란성이호마호야삼랑과삼귀비초레로사호를던져국세번
 복호고승부를불분호더니홀연진국공쥬놀흔사호를엇음애덜귀비크게소리호고풍
 우곳치호마호야괴세등등호더니유부인이또호놀흔사호를침애란성이또호크게소